



▲ 이 동 민 현장소장

## 현장식구들 안전은 내 가족처럼..... 죽전 e-편한세상의 따뜻한 안전

- 대림산업(주) 죽전 2, 3차 e-편한세상 -

**노**고 파란 하늘에 가을이라는 화가가 하얀색 물감으로 한점의 그림을 정성껏 **노**그리는 마음처럼, 정성껏 무재해의 공든 탑을 쌓아가는 현장 죽전 2, 3차 아파트 현장!

내일이면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써부터 고향을 향하는 차량으로 도로는 아파오지만 이정도의 아픔쯤이야 견딜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근로자가 가족이기에 그 어떤 아픔도 참고 견디며 무재해 현장으로 만들어 가는 e-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을 찾았다.

대림산업(주)에서 시공하고 있는 죽전 2, 3차 e-편한세상(현장소장 이동민)은 내년 2월에 준공을 앞둔 무재해 현장으로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도 잇고 무재해 현장을 만들고 있는 이 곳에 건교부장관이 방문한바 있고, 인근 지역의 주택공사 등 타 현장에서도 이 곳의 안전을 견학함을 통해 이미 이곳의 안전은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저 멀리 외관에서도 대림산업(주)의 죽전 2, 3차 현장임을 알 수 있는 이곳은 특별한 곳이 있다.

###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전관리

“근로자의 안전은 내 가족처럼 돌본다”

이 것은 이동민 소장의 안전경영 방침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소중한 가족을 경영방침 맨 앞에 내세운 것도 가장 소중한 것이 근로자의 건강이요, 안전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모든 것에 가족으로 귀결되어 접근한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다는 것이 이동민 소장의 말이다.

따라서 이 곳 현장은 어린아이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현장,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현장내 어느 곳을 다녀도 안심할 수 있는 현장을 가족이라는 기반위에 세워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가족이다 보니 근로자를 대하는 이들의 자세 또한 남다른데, 갑을 관계, 상하관계가 아닌 현장소장도 현장의 일원으로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현석 공사차장은 “저 분들이 새벽 일찍 현장에 나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전부를 해결하여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이라도 그 분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예로 대부분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근로자를 담당자 앞에 세워놓고 일을 보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서 만큼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의자를 내주고 커피라도 내어줍니다. 이 것이 가족 아닌가요?”라고 말한다.

호텔 수준의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장, 휴게실, 운동시설 등도 이들을 가족이라 생각했기에 안전관리비와는 상관 없이 필요한 부분에 주저 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안전은 기초에서부터 시작

안전의 기본은 정리·정돈이라고 했다. 길은 길이어야 하고, 야적장은 야적장이어야 한다. 길과 야적장이 구분 없이 지지분하다면 분명 사고가 일어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곳 죽전현장에서는 기본부터 탄탄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마감공정에서 수반되는 것이 도로공사이다. 그렇다보니 먼저

와 마감자재와 어울어져 더욱 현장은 지지분하여 안전통제가 불가능하여 마감공사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반해 이곳 현장에서는 마감공정 이전에 단지내 도로를 미리 포장과 자재의 Lay out 배치로 깨끗한 마감공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안전에서 접근한 사전 도로포장은 이후 공기도 단축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기초에서 시작한 안전은 위험예지훈련인 SORA로 이어진다. 금년 3월부터 시작한 대림산업의 전사적 안전 활동인 SORA는 이미 그 이전에 이곳 현장에서 시작되어 지금 전 현장으로 확대되었다.

매일매일 담당자가 현장의 문제점 및 위험사항을 온라인 전산망에 업데이트하여 오픈함으로써 전국 대림현장과 공유하는 SORA시스템은 이렇게 대림산업 전사적 안전활동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히..

군 생활 제대를 앞두고 “떨어지는 낙엽이라도 조심하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 그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의미이다.

마감공사가 한창인 이 곳 죽전 e-편한세상도 준공을 몇 개월 앞에 두고 떨어지는 낙엽 나무 아래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만큼 안전의 긴장을 놓지 않는다.

마감공사 때 중대 재해 위험요소가 그 만큼 줄어들며 따라 작업자들의 긴장이 나태해 지고 그 만큼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동민 소장이 당부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오늘도 이곳 현장은 안전의 기초인 정리·정돈이 기틀이 되고 감전사고 위험에 대해 모든 작업자에게 고가의 절연장갑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는 투자와, 현장 어느 곳에서나 나홀로 작업을 금하고 항상 2인 1조를 하도록 하는 철저한 관리로 마감공사에 긴장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다.

이처럼 빈틈 없는 안전과 아파트에 입주자가 입주하여 웃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을 생활화 함으로써 대림산업(주) 죽전 2, 3차 e-편한세상은 무재해 준공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긴다. 

〈최종덕 기자〉

